

[사회]

“당신의 의로움은 우리의 편안함입니다”

5·18 추모리본에 애절한 사연을 담아



9일 오후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추모리본을 달고 있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사랑하는 아들이, 고요히 잠 드소서...’ ‘당신들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사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평화통일은 저희가 이를 계요’ ‘전두환씨 많이 반성하세요’

항쟁 27주년을 맞는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에는 요즘 1천여 개의 리본이 저마다 추모의 사연을 담고 나뉘었다.

어느 어머니는 비뿔비뿔한 글씨로 가슴에 묻은 아들을 다독였고, 부산대 역사교육학과 최병훈군은 역사교사가 돼 5월을 가르칠 것을 다짐했다. 창원에서 온 중학생 황유림양은 ‘통일’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반성’을 열사들의 묘지 앞에서 생각해냈다.

군산·부산·창원·울산·제주 등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온 추모객들의 사연도 이어졌다. 인도의 조로씨는 ‘5월 모역에서 위대한 평화를 생각했다’고 썼고, 한 일본인은 ‘당신의 의로움은 우리의 편안함입니다’라고 추모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정수만)는 지난 6일부터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시작한 ‘추모리본 달기’를 시작했다. 유족회는 이 행사를 위해 폭 10cm·길이 2m의 흰색·노랑·연노랑·분홍·연두색 등 다섯 가지 색깔의 리본 4천여 개를 준비했다. 추모리본 달기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 사립외고 재공모 태성학원·독지가 신청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립 외고고등학교 설립 공모에 호반건설 계열 학교법인인 태성학원(이사장 김상열)과 광주 모 초등학교 김모(57) 교사가 신청을 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5월8일까지 사립 외고고 설립자를 재공모한 결과, 이들 법인과 개인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태성학원은 영어·일어·중국어과 등 3개 학과를 개설하고 학년당 8학급, 학급당 정원 30명씩 모두 24학급에 720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비용 200억원과 수익용 자산 100억원 등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300억원은 이사장 개인재산과 호반건설을 비롯한 계열사가 무상 증여 및 출연 등을 통해 조달하고, 이와 별도로 이사장과 호반건설 등 계열사가 매년 10억원씩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어린 재산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김 교사는 수백억원대의 재력가인 친척과 함께 총 500억원을 투자, 역시 동구 선교동에 학교를 지어 2010년 3월 개교할 계획임을 밝혔다. 개설 예정 학과는 영어·일어·중국어과 등 3개 학과이며 학생 정원은 학년당 6학급, 학급당 30명씩 모두 18학급에 540명이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라도 말 ‘자네’를 해부합니다

내일 조선대서 학술세미나

‘거시기’와 함께 전라도 특유의 방언을 대변하는 ‘자네’의 사회언어학적 의미를 짚는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부르거나 부부간 호칭으로 쓰이는 등 전라도 외 지역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독특한 용법으로 학계의 주목받아온 ‘자네’의 용법을 규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조선대 강희숙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11일 조선대 본관 4층 다목적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전남 방언 여성 호칭어 연구’ 학술세미나에서 ‘전남방언 2인칭 대명사 자네의 용법’을 발표한다. 강 교수에 따르면 100명의 전남 지역 토박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자네’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고 ‘하위자→상위자’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자네’는 주로 40대 이상에서 나타났다. 이는 형(오빠)이나 누나(언니), 고모, 이모, 삼촌 등 가까운 친척에게 ‘허소체’(예사낱+~랑, ~리우)의 등급과 함께 ‘자네’를 사용하던 언어적 전통이 점차 소멸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부부간의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을 호칭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60대 여성들은 단 한 차례도 ‘자네’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에 이르러 다른 대안적 호칭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이가 서로 비슷한 사이나 ‘상위자→하위자’의 상황에서 쓰이는 ‘자네’는 20대 남성에게서도 나타나지만, 30대가 넘어서야 좀 더 일반적인 호칭으로 선택되는 경향을 보였다. 60대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 친척이나 이웃 간을 제외하면 ‘자네’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의 사회적 관계가 대부분 친족집단이나 이웃 집단에 한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 ‘자네’의 사용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빈도로 사용돼,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교수는 “2인칭 대명사 ‘자네’가 전라도에서는 매우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여러 방식으로 사용되고 각 가지 사회적 변수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영어 체험센터’ 광주 서석초교에 9월 조성

광주지역 초등학생들이 공짜로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오는 9월 광주 서석초등학교에 들어선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점 초등영어체험학습센터’로 광주 서석초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석초교 내 유휴교실 6개를 리모델링해 만들어지는 영어체험학습센터에는 모의 병원과 은행, 우체국, 경찰서, 도서관 등이 꾸며져 학생들이 무료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우선 원어민교사 1명을 배치하고, 내년부터는 3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서석초교 학생들뿐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도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다음주부터 전면 금지

온라인 게임 가운데 고스톱이나 포커 베팅과 배당을 하는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환전과 환전 알선업이 내주 초부터 전면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 게임의 환전 관련업 등에 대한 금지대상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주 초 법령 시행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필뉴스

Weather forecast for May 10th (Wednesday, May 24th) and a table of daily weather from 11th to 16th. Includes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regions.

Article titled '광주 72개교 올 '스승의 날' 휴업' (Gwangju 72 schools to have a day off for Teachers' Day). It reports that 72 schools (36% of the total) will have a day off on May 15th. The article lists the number of schools in each district that will have a day off.

Article titled '“총지 교사 퇴출” 교원 11%만 찬성' (Only 11% of teachers support 'total teacher dismissal'). It discusses the controversy over the dismissal of teachers and the low level of support for the measure among the teaching staff.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Real Estate Broker) training. It features a large '6월 1일 첫진도 개강' (Starts on June 1st) and lists details for the course, including the number of students and the instructor.

Advertisement for '한빛고시학원' (Hanbit Gosi Academy). It promotes '수강료 환급' (Tuition refund) and '전국 최강의 강사진' (The strongest nationwide faculty). It lists various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7.9 공무원' (7.9 Civil Service Exam) preparation. It lists the exam dates and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training courses offered by '한빛고시학원'.

Advertisement for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9.9 Police Exam Preparation). It highlights '합격특강' (Passing special training) and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153 first-time passers in the March 18th written exam).

Advertisement for '한빛고시학원' (Hanbit Gosi Academy) featuring '7.9 공무원' (7.9 Civil Service Exam) and '5만명 증원' (50,000 new recruits).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exam and the academy's offerings.